

# <전 과목 공부법 칼럼\_국어 영역 편>

by 박동현 - 수능원점수 395점 - 수만휘 과수, 칼럼 활동 - 독학재수학원 공부법, 커리큘럼 멘토

## 목차

1. 서두
2. 공부법이란
3. 공부의 독, 인강
4. 인강 듣는 법
5.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공부법
6. 본론 (각 과목별 공부법)

### < 서두 >

갓 익은(?)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공부법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굵어모아서 진심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시간과 성적이 정비례하는 학교내신시험이나 과거의 학력고사는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유형을 암기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신유형,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게 된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공부법이 아닌 다른 공부법으로 점수를 올리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르비, 포만한등의 입시사이트에서 여러 공부법을 찾아 비교해보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초기에 몇 가지 공부법만 적당히 알아보신 다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나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쓴 공부법을 100% 따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서 3가지를 계속 반복하며 강조할 겁니다. 글을 읽다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 한다는 느낌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제가 학생 분들께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자, 성적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수많은 공부 멘토들이 TV나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세요.” “반드시 복습하세요” 등의 뻔한 말들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뻔한 소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저는 돌려 말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공부법이란 >

먼저 공부법이란 1년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공부의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인강을 들을까, 어떤 교재를 구매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는 그러한 콘텐츠를 들 ‘어떻게 활용할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1타 강사의 인강을 듣고, 유명한 단과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 건 평타치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평균’이라는 소리입니다. 평균이면 점수 ‘유지’입니다. 인강을 듣는 학생의 대부분은 인강을 듣고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내용을 복습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는 평균적인 공부를 하고 점수상승을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하는 평균적인 공부이고 점수 유지를 위한 공부였고, 점수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국어 기출문제집 ‘마르고 닳도록x’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고치고 필기하는 것 까지가 평균적인 공부입니다. 이 책을 산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성적상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점수상승을 위한 자신만의 추가적인 공부, 그것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따라해야 하는 절대공부법 같은 동화 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인강과 교재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공부할 지를 고민해보세요.

그게 성적을 올리는 법입니다.

## < 공부의 독, 인강 >

밑에 구멍이 뚫린 화분은 위에 엄청 좋은 물과 영양분을 부어도 어차피 다 새나갑니다. 본인이 흡수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화분 밑바닥에 흙을 쌓으면 쌓을수록 물을 부었을때 물의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감소합니다.

물 = 인강

흙 =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으로만 화분을 채우셔도 되고, 흙으로 채우면서 적절히 물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화분을 채우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화분을 흙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물과 각종 화려한 인강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 공부가 먼저고

보조로 인강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등급대가 7등급이하 정도인 분들이라면 스스로 흙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배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강이나 수업이 별도로 병행 되어야할 필요는 경우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인강 듣는 법>

저는 수학이든 과탐이든, 모든 영역에서 인강을 듣기 전에 항상 예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몇몇 인강 선생님들께서 개념 인강은 예습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그 분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강은 절대 같은 집중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집중도의 템포 조절(?)이 필요한데 이는 수업에 대한 예습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고 인강을 듣게 되면 수업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집중도를 바꿔가며 인강을 들으면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나오는 자신은 모르는 내용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 더 오래 각인됩니다. 남들보다 다르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강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개념인강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인강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암기'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블이나 하이탑을 추가해서 독학으로 개념을 암기하고 수업 때 '이해'해야지, 수업시간에 개념 정의에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선생님의 말은 점점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과목별로 인강의 예습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몰아서 복습하지 말고 여러 날에 걸친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듣고 저녁에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복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손 운동한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형식상의 복습을 한 셈이지요.

제가 모 인강을 들었던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강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존재합니다. 만약 화요일 날에 과탐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치면, 일단 월요일에는 인강교재에 나온 개념을 혼자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이탑이라는 책으로 1강에 해당하는 단원을 예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읽었던 하이탑 부분을 변화된 시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당일 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개념인강에 실린 몇 문제 안 되는 유제들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 교재의 내용을 복 이렇게 공부하면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하루에 몇 십분 이내로 공부한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자극을 주는 것이지요. 만약 인강을 하루에 1강씩 듣는다면 이런 형식이 되겠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1강 예습	인강 1강	1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2강 예습	인강 2강	2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누적복습입니다. 다음날에 한번 복습하는 건 그냥 암기테스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만 되도 기억의 절반이 가물가물해 집니다. 인강도 체계적으로 들어야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5일씩의 공부를 따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예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고 복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습니다. 날짜나 방법은 개인마다 당연히 달라야 하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1타강사의 어떤 인강을 들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고민하세요.

이 글을 읽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공부한 내용은 무슨 요일까지 복습해야 하나요?”

이 분은 아직 제 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능동적인 공부'입니다. 같은 파트를 공부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파트를 공부한다고 느껴지면 복습일자를 늘리면 되고, 쉬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복습을 하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를 하세요.

## <모든 과목에서 사용한 공통적인 공부법>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복습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은 다음날 한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평타치는 겁니다. 복습은 과목마다 분량과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이 약간씩 달라야합니다. 내용이 많은 파트는 반복횟수와 방법을 달리해주면서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써드리는 방법은 '복습'을 하기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 방법을 100%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따라해 주시되 방법은 달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량도 물론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르는 내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데 복습의 횟수와 시간, 그리고 방법이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1번: 낱인 문제에 필기하는용

2번: 실력 문제에 필기하는용 (모르는 개념 등)

3번: 맞긴 했는데 돌아가거나 버벅거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에 필기하는용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으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필기한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적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 그 노트에 쓴 내용을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까먹을 것 같은 필기내용들은 따로 체크를 해서 주말에 노트에 모아서 가볍게 스캔하며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다시 한 번 노트를 복습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의를 듣고 필기해서 그 다음날 복습하고 끝낸다면 그중 얼마만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무조건 반복하세요.

반복안하면 기껏 공부한 시간과 필기한 내용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남들 듣는 인강을 듣고, 숙제도 다하고 분명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평균치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방법을 저는 위와 같이 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인마다 당연히 방법은 달라해도 됩니다. 개인에게 맞게 복습날짜를 정하고 양을 정하고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꼭 '복습'을 해주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점수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복해야합니다.

문제집을 '많이'푸는 게 공부를 '많이'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하세요.

제 방법을 100% 따르지는 마세요.

본인 스스로 분량과 시간을 정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겁니다.

반복하세요.

각 과목별 세부적인 반복 학습법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본론 >

### -기출문제 공부법

4등급이상의 점수가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제대로 된 자율학습으로 기출을 분석하여 100점까지 가능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올해 수능 100점을 맞았습니다. 국어영역에서 인강은 '필수'가 아닌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출을 분석한 뒤에 듣는 인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인강에 의존하거나 기출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영역 기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기출문제 32회분이 수록되어있는 마르고달도x(마달)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와 해설이 있는 책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마달이라는 책의 해설이 좋았습니다.

문제 푸는 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시간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모의고사 한회 or 반회, 둘 중 하나를 맘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제 방법과 분량을 100%따르지 마세요. 개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정해가면서 공부해 주세요. 참고로 등급이 낮을수록 1회독을 할 때는 진도를 스피드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어영역이라는 시험에 익숙해져야지 자신이 모르는 내용과 아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기출문제 책은 최소 2번 이상 풀 겁니다.

일단 책을 처음 풀 때(1회독)는 시간재서 풀 다음에, 바로 채점하지마세요. 채점하지마시고 풀 문제 중에서 헷갈렸던 선지들과 답이 2번이라서 보지 못한 3,4,5번선지를 다시 풀어보세요. 답을 알고 선지를 보는 것과 답을 모른 상태로 선지를 보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답을 알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선지를 읽기 시작하거든요. 채점하기 전에 초별구이(?)를 해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선지 앞에 체크를 한 다음에 채점하세요. 그리고 마냥의 꼼꼼한 해설지를 보면서 모르거나 헷갈렸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틀린 이유와 몰랐던 내용들을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네이버도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저는 필기를 할 때 저한테 가르치듯이 필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을 틀리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추론해서 답을 내면 안 된다.' 등의 필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더 잘 각인되었는데, 물론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제일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적은 내용을 그 다음날 국어공부하시기전에 반드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날 틀린 내용과 밑줄 친 부분, 필기내용을 복습하지 않고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지 마세요. 그 전날 공부한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성적은 계속 제자리걸음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그 다음날 말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트를 이용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필기한 내용들을 그 다음날 한 번 더 요약해서 노트에 요약만 정리해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복하구요. 물론 방법은 개인마다 달라해도 좋으니 복습을 꼭 해주세요. 정말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절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반복하세요.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풀었던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32회분의 모의고사를 다 풀면 이제 2회독(2회독 이상)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역시 이번에도 시간을 재고 푹니다. 1회독을 푸는 방식을 따르되 이번에는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고정 1등급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1회독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2회독 때 하는 게 공부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추가적인 공부 방향은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강이나 수업

개념의 버터플라이효과와 훈련도Gam같은 훌륭한 인강,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출문제 16~20회분정도를 먼저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강을 활용해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인강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인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강 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암기'하고 수업 때 '이해'해야지, 수업시간에 용어 정의에 집중하면 선생님의 말은 점점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주셔야 할 것이 절대 인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출이 우선이고 인강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10시간 공부한다면 인강은 3시간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인강을 안 듣고 저처럼 기출문제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 -파트별 추가적인 공부법

### 1. 화법과 작문

헷갈렸던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노림수를 파악해 보세요. 안보이면 3회독까지 계속 시도하세요. 인강에서 알려주는 내용 받아먹는 것보다 스스로 추론해보는 것이 실제 시험 볼 때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날에는 긴장 되서 화법과 작문이 더럽게 안 읽힙니다. 아침마다 화법과 작문 1~2지문정도의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재고 푸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 2. 문법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을 나올 때마다 끝장내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 확실히 그 부분은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개념서를 찾아보든지 해서 정복하세요. 그리고 EBS문법문제를 추가적으로 조금씩 병행하세요. 문법파트가 약하시다면 10장 이내의 짧은 인강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문법 개념서에 나오는 문법 설명들을 종이에 직접 써가며 말로 설명해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복습은 기본이겠죠.

## 3. 비문학

채점한 뒤에, 풀었던 비문학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세요. 지문을 읽으면서 “아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읽어 내려 가다보면 결국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느라 헤맬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으면서 “1단락은 화제제시 2단락은 추가설명 3단락은 새로운 화제제시 4단락은 해결책”, 이렇게 머릿속에 잔상이 날 수 있도록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 공부할 때는 필기를 하면서 읽어도 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으므로 머릿속으로 해야겠지요. 긴장되는 수능시험장에서 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내용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라도, 제시간에 정답은 찍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고 단서가 지문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찾아가야하는데,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헛갈리는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노림수를 읽어보세요.

추가적으로 인강 사이트에는 고난이도 비문학 인강이 있습니다. 어려운 철학이나 기술지문들에 대한 강한 트레이닝을 원하신다면 인강 교재를 구매해서 별도로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4. 문학

EBS에서 문학파트만 골라서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풀어보세요. 이때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EBS 문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려도 그러려니 하세요. EBS 문학문제를 푸는 건 EBS의 문학작품 내용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점을 하고 기출문제처럼 문제 분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학문제를 푸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쪽 스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주제와 전체줄거리도 배경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읽어두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문학을 풀 때 선지에 모르는 표현과 애매한 표현이 꽤 있을 겁니다. 색채대비, 시간의 역전적 구성 등등 시험지에서 정확히 언제 그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헛갈린다면, 밑줄을 긋고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각종 인강사이트 국어영역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보세요.(인강 안 들어도 질문답변 해줍니다.ㅎ)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헛갈리는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코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전문학의 해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고전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인강에 의존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남이 떠먹여 주는 개념은 절대 스스로 고민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고전시가의 모든 것'과 같은 고전문학 자습서를 하루에 작품 수를 정해서 스스로 설명을 보며 해석해나가는 것입니다.

시나 소설을 읽는 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며 본인에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강을 듣는 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강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은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나가세요.

### -EBS활용법

위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EBS에서 비문학은 푸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남을 때 여가생활로 즐겨주세요. 문학은 배경지식 확장 및 연계 대비로 전 문항을 조금씩 나눠서 풀어주세요. 방법은 위에 쓰여 있습니다. 문법도 풀어주세요. 문법은 공부하듯이 푸시면 됩니다. 화법과 작문도 비문학처럼 여가생활로 생각해주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가지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라고요.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이 3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제 글을 완벽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누적 복습, 연습 하는 거  
솔직히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답답하구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정도만 하고  
제대로 시행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몇 명 정도가 읽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분이라도,  
천명이 넘는 분들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켜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글의 목적과 취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평균이고, 평균이면 점수유지입니다.  
귀찮은 걸 해냈으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지 않았으니까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